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우리 인간은 언어를 가진 다음부터 비로소 인간이 되었지요.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세상은 언어와 함께 성장한 것이지요. 언어학자 소쉬르는 인간의 세계란 언어에 의해 파악되는 세계라고 여겼지요.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도 나타나고 성격도 알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오늘도 아름다운 우리말을 공부해보기로 해요.

허섭스레기: 좋은 것을 고르고 난 뒤의 허름한 물건. 허섭스레기는 모았다가 한꺼번에 태워버리자.

흐드러지다: 1.썩 탐스럽다. 2.아주 잘 익어 무르녹다. 호수공원에 나갔더니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들이 모두 일어나 합창을 하고 있었다.

갈매빛 : 짙은 초록빛. =갈매.
갈맷빛은 윤씨 부인의 병색과 더불어 우울하고 퇴색된 느낌을 준다. <박경리, 토지>

갈기 : 말이나 사자 따위의 목덜미에 난 긴 털. =갈기털. 양손으로 재갈과 갈기를 한꺼번에 틀어잡은 채 마 등에 찰싹 달라붙은 김철은 조금도 동요하는 빛이 없었다. <이문열, 영웅시대>

추레하다: 1.겉모양이 허술하여 보잘것없다.
2.생생한 기운이 없다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죄 통해 용서하는 삶의 방식 일깨워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나다니엘 호손作 '주홍글씨'

인간의 원죄를 나타내는 소설이지요. 치밀한 구성이 돋보이는 미국낭만주의 대표적소설로 높이 평가받고 있지요. 주홍글씨의 상징적 의미는 물론 헤스터가 간통죄로 A(Adultery)자의 주홍글씨를 가슴에 붙이고 일생을 살게 한 죄의 징벌이나 또한 헤스터가 인간적 성숙을 통해 그 글자를 변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인간의 죄나 구원, 행복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지요. 여러분은 헤스터처럼 지은 죄가 드러나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간 사람과 딤즈데일 목사처럼 지은 죄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 받으며 살아간 사람과 틸링워드처럼 죄지은 사람을 미워하며 산 사람 셋 중에서 가장 고통 받은 사람이 누구였을지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간통죄로 A(Adultery)자의 주홍글씨를 가슴에 붙인 헤스터가 죄의 자식 펄을 안은 채 공개처벌 단상에 서는 대목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간통한 상대의 남자 이름을 대라는 말을 듣고도 그녀는 입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이때 보스턴 시민에 섞여서 한 노인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는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행방불명이 되었던 헤스터의 남편 틸링워드 의사였다. 그는 옥중으로 아내를 방문하여, 상대 남자의 이름을 물어보나 헤스터는 비밀을 지키며 딸 펄을 데리고 삯바느질을 하며 당당하게 세상을 맞서며 살아간다. 틸링워드는 장본인이 명망 있고 존경받는 청년 목사 딤즈데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죄의 고백을 차마하지 못한 채 괴로움에 싸여 초췌해 가는 목사의 주치의가 되어, 가까이서 괴로워하는 목사를 보며, 복수의 쾌감을 맛본다. 헤스터는 청교도 사회의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로써 사회봉사를 해 나가는 동안 차차 존경을 받게 되지만, 이와 반대로 목사는 죄의식의 수렁 속에 빠져 몸부림친다. 7년이 지난 어

청교도 사회 배경의 심리소설
죄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 묘사

느 날 목사는 총독 취임을 맞아 특별 설교를 하여 청중에게 깊은 감명을 준 뒤, 스스로 공중 앞에서 자기의 간음죄를 고백하고, 헤스터와 펄에게 안긴 채 숨을 거둔다.

이작품은 17세기 보스턴의 청교도 사회가 배경을 이룬 심리소설로, 호손은 죄 자체보다 불륜이 끝난 다음의 죄의 심리적 역할에 대해 관심이 많지요. 호손이 가장 관심 가졌던 인물은 고뇌와 죄의식을 통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나타낸 딤즈데일이 아닐까요.

헤스터는 다소곳하며 순종적이며 성모마리아를 닮았고 독립적이고 강한 인물이지요. 남편 틸링워드는 학자나 의사로는 높은 평가를 받지만 단죄하고픈 복수심에 점차 사악해지는 인물이지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동정심이 가는 인물이기도 해요 용서하지 못한 죄를 범하나 죽을 때 딸 펄에게 그의 유산을 남기고 죽지요. 펄은 미미한 존재로 혹은 작은 조연으로 나오지만 죄와 구원, 선과 악의 틈에서 아직 선과 악 세계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의 인물이 아닐까요.

그러나 고백하러 올라온 목사에게 키스를 해주기도 하지요.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진정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며 세상을 받아들이는 순간의 장면이지요. 가해자나 피해자가 묘하게 전복되기도 하는 이 소설은 죄가 각 주인공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를 묘사한 상징적인 이야기죠. 작가 호손은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나서, 스스로의 원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겐 죄 그 자체보다도 예술가로서 죄의식이 인간의 심리에 어떤 작용을 하는 가의 문제를 더 중요시했지요. 틸링워드는 비참하게 죽어가지요. 파멸을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헤스터나 목사는 고백하거나 사랑과 복사와 인내로 구원을 받지만 남편 틸링워드는 남을 미워하고 멸시하면서 살아온 사람으로 파멸에 이르게 한 작가의 의도가 작가의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용서하는 삶의 방식을 배워야겠지요. 또한 머리는 크나 가슴이 작은 의사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지요. 마음과 머리가 균형이 잡힌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작가의 말이 들리나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친구 중 불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제 친한 친구 중에서 불교를 믿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교회에 다니는 한 친구는 '너는 왜 돌이랑 나무에다 절을 하냐'고 막 뭐라 그래요. 이 친구한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ID:인천소녀)

운산 스님의 말씀

친구들의 행복 빌어주세요

스님도 학생시절, 그저 불교가 좋아 절에 다녔어요. 하지만 다니던 절에는 학생회가 없었고, 그렇다고 일부러 먼 절까지 찾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릴 적부터 제 주변에는 절 보다는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는 함께 교회에 가자고 권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부처님이 사셨던 인도는 '종교의 나라'라고 할 만큼이나 종교가 많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당시에도 다른 종교인과 불교인이 어떻게 어울려 살 것인지 하는 문제가 참 중요했지요. 그러다가 한 번은 다른 종교인들이 나쁜 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자를 설득하여 부처님을 모시고, 독이 든 음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처님은 대단한 분이신지라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 사람들의 잘못을 차분하게 용서하시지요.
오늘 부처님과 예수님이 직접 만나신다면 "내 말만 들어. 저 쪽 이야기는 듣지 마!" 그러실까요? 아마도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웃으시겠지요. 그리고는 서로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며 이해해주라고 하실 거예요. 아마도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일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행복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되지요. 그러면 우리들은 모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지요?
(서울 옥천암 청소년 지도법사)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